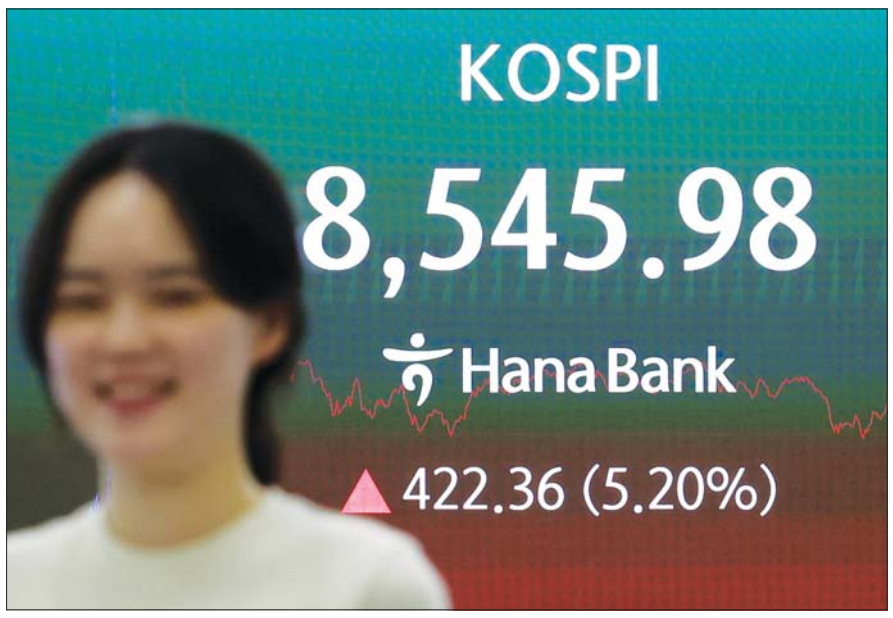
종전 기대에 코스피 8500 재돌파… 환율도 일단 안정세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강세
외국인 이틀째 조단위 순매수
원·달러 환율 1510원대 하락
호르무즈 개방 기대감 반영
아시아 AI 밸류체인 동반 반등
MOU·금리 변수에 변동성 경계



코스피가 전 거래일(8123.62)보다 422.36포인트(5.20%) 오른 8545.98에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어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029.05)보다 4.98포인트(0.48%) 상승한 1034.03,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519.8원)보다 8.7원 내린 1511.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미국과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종전 소식을 전한 뒤 큰 폭으로 오른 코스피가 다시 8540에 올라섰다. 종전으로 인한 안도감과 인공지능(AI)발 반도체 랠리가 펼쳐지며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를 팔아치우던 외국인이 이틀 연속 조 단위 순매수에 나서며 원·달러 환율도 1511원대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전쟁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해 당분간 변동성 높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등 실적 기대감 ↑

15일 코스피는 5.20% 급등한 8545.98로 마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6분 2초를 기해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66.00포인트(5.07%) 상승한 1365.85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안도 랠리는 정보기술(IT) 업종이 주도했다. 전날 8% 상승했던 삼성전자는 이날 4.5% 상승한 33만7000원으로 마감하며 '33만 전자'를 회복했다. SK하이닉스는 6.42% 급등했다. 삼성전자 우선주(+4.35%), SK스퀘어(+4.05%) 등도 반등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의 짙은 전운이 가시지 않으면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금세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지만, 이날 극적으로 종전에 합의해 최악을 피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서 에너지 공급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국제 유가 하락은 무역수지 개선과 기업들의 원가 부담 축소로 직결된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수출 주도 업종은 물론 유가에 민감한 항공, 해운, 석유화학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에도 장밋빛 희망이 싹튼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며 미국과 이란 협상이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빠르게 재개되는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각각 0.1%포인트(p)씩 높아지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0.2%p, 내년 0.3%p씩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 돌아온 외국인, 원화 1400원대 갈까

시장의 관심은 환율에 쏠린다. 중동전쟁 리스크가 빠지면 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그러나 최근 원화 약세의 주 동력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지에 관해선 의문이 있다 .

이날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2조2000억원)가 더해지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7원 내린 1511.1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은 지난 12일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2조204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시장에서는 원화 방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외환 시장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이란 종전 협상으로 유가는 80달러 이하로 내리고 채권금리와 환율은 안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는 증시 상승 탄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채권금리와 달러화가 고점에서 소폭 내리는 데 그치고 있고, 곧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결정회의도 있다. 금리 변수로 인한 노이즈 발생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종전은 시작. 과도한 낙관론 경계"

일본 닛케이평균(4.99%), 대만 자취안지수(2.78%)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동반 강세로 전환했다. 한국, 일본, 대만 3국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국제 유가 상승 영향을 크게 받았다. 중국 증시도 상승 마감했다.

다만 과도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19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미국과 이란 양국은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60일간 영구 종전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본협상에 돌입한다. 최악의 중동 전쟁을 고통 속에 지켜봐 온 전 세계는 양국의 극적인 합의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예정된 MOU 체결이 공고한 평화의 시작이 아닌 더 치열하고 전방위적인 '2차 외교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앞으로 주어진 60일의 유예기간 동안 양국은 이란 핵물질 처리와 동결자금 해제라는 양대 핵심 의제를 두고 격렬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곧 본격적인 전쟁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전쟁의 경제적 비용은 물가상승률 등의 지표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안도 랠리와 별도로 세계 경제는 높아진 물가 부담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국투자금융, 글로벌 ABF 시장 공략

CAP 설립에 앵커 투자 참여
캐년·다이치생명과 합작법인
사모신용 넘어 대체투자 확장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한국투자금융그룹이 글로벌 자산담보부금융(ABF) 전문 투자법인 설립에 앵커 투자자로 참여하며 국내 금융권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인 ABF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사모신용 중심의 해외 대체투자 영역을 확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은 글로벌 자산담보부금융(Asset Backed Finance, 이하 ABF) 전문 투자 법인인 '캐년 ABF 파트너스(Canyon ABF Partners, 이하 CAP)' 설립에 앵커 투자자 자격으로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선진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메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ABF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스터디를 바탕으로 단행됐다. 높은 전문성과 진입장벽,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변동성을 갖춘 ABF 시장에서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추진하기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CAP는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 캐년 파트너스(Canyon Partners), 일본 다이치생명(Daiichi Life Insurance), 한국투자금융그룹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작법인이다. 구조화금융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제이 킴(Jay Kim)이 대표를 맡는다. CAP는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대출 실행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전문 대출기관 및 지역 은행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단순 재무적 투자가 아닌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의 일환이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은 글로벌 ABF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과 딜 소싱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투자상품 발굴 및 판매 등 파트너사들과 다양한 사업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사모신용(Private Credit) 중심의 기존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BF는 소비자 금융, 부동산, 실물 자산, 특허 및 로열티 등 실물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산의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구조화 상품이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KKR에 따르면 글로벌 ABF 자산 규모는 2006년 3조 1000억 달러(약 4732조원)에서 2024년 6조 1000억 달러(약 9313조원)로 2배 가까이 성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3년 미 지역은행 부실화 사태 등으로 현지 은행들의 대출 공급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대체투자 전문 기관들이 실물 경제의 핵심 유동성 공급자로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투자금융그룹 관계자는 "ABF는 글로벌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핵심 자산으로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아직 국내에는 도입 초기 단계"라며, "이번 지분 참여는 단기적 수익 창출을 넘어 선진 금융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고 당사의 글로벌 대체투자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탐색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자는 한국투자금융그룹이 추구하는 '아시아 최고의 금융그룹'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단기적인 투자수익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성장 영역에서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CAP 참여를 통해 대체투자 부문에 대한 그룹의 높은 관심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존 강점을 보유한 사모신용 투자 영역을 넘어 ABF 시장으로 전문성과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대체투자 역량을 한층 강화해가겠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美 주식 품귀 끝나나… 메가 IPO 줄대기

2년간 순공급 1.5조달러 전망
스페이스X 이어 AI 기업 대기
물량 부담·투자수요 전망 엇갈림

스페이스X가 증시에 입성한 데 이어 앤트로픽과 오픈AI의 메가 기업공개(IPO)가 대기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이 20년 넘게 지속된 '주식 공급 부족' 상태를 벗어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넘치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증시 침체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과 인공지능(AI) 선도 종목 등을 기다렸던 투자 수요가 탄탄했던 만큼 공급 물량에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엇갈린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미국 증시가 지금 닷컴버블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공급 확대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JP모건체이스에 따르면 향후 2년 동안 IPO, 유상증자, 기타 주식 매각 등을 통해 미국 증시에 추가될 물량이 1조5000억달러(약 226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수치는 자사주 매입으로 줄어드는 물량까지 반영한 것이다.

이 추정치가 현실화하면 미국 주식 시장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최대 '순(純) 공급'을 맞게 된다.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막대한 자사주 매입과 상장폐지 때문에 투자자들이 살 만한 주식이 줄어드는 '품귀' 현상이 대세였다. 이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회수한 규모만 무려 12조달러(약 1경8240조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공급량 증대가 증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BCA 리서치의 노아 와이스버거 전략가는 과거에도 대형 IPO가 단행되면 이후 증시가 성장이 정체되거나 역성장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대형 IPO가 무더기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시장의 우려 요인이며, 증시 전반에 상당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론도 만만찮다. 물량 증가는 시장의 '리스크'(위험 요인)에 불과하고 기업들의 펀더멘털(실적)이 뒷받침하는 만큼 이번 국면을 증시가 격변하는 계기로 보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이다.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번스틴의 이니고 프레이저 기관솔루션 부문 공동대표는 "이번 변화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감내해야 할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증시 활황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문턱이 좀 더 높아진 정도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주목받는 스페이스X 등에 애초 억눌렸던 수요가 매우 높다는 분석도 많다.

사모펀드 테세라의 찬 안 설립자는 "현재 엄청난 규모의 투자 수요가 대기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 수요가 시장 전반의 건강한 체력을 증명하는 신호로는 볼 수 없고, 당장은 꽁꽁 묶여 있던 투자 접근성의 희소성이 빚어낸 결과로 읽힌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